



智異山 禮讚

禹 鍾 秀

智異山을 간추려 評하자면, 秀麗莊嚴한 南韓 最大의 莊山으로서 歷史깊은 民族崇仰의 靈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往古에 西山大師는 그 有名한 四山 評에서 “金剛山은 秀而不莊”하고, “智異山은 莊而不秀”라 評하였다고 傳하지만 그것은 金剛山과 智異山을 서로 견주어 볼 때 秀麗하기로는 金剛山이 으뜸이요, 莊嚴하기로는 智異山이 으뜸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西山大師의 四山 評에 오른 우리나라 四大名山 中에서 金剛山, 妙香山, 九月山이 現在 모두 北녘땅에 있고보니 오직 智異山만이 唯一하게 南韓 땅에 鎮座하여 드높은 氣象으로 거룩하게 天空에 우뚝 솟아 天下를 굽어보며 君臨하여 나라를 守護하고 있으니, 이와같은 幸運의 智異山이 어찌 더욱 名山 中의 靈山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메뿌리의 主幹을 이루는 白頭大幹의 큰 줄기 脊椎山脈이 國土를 北·南으로 크게 縱走하며 南下하여 太白山脈을 이루고 다시 小白精脈을 綿綿히 거치면서 南海의 푸른바다를 아득히 바라볼 수 있는 湖嶺의 中心部터전 大地위에 우뚝 솟아 그 偉容을 떨치는 智異山은 全南, 全北, 慶南의 3道, 求禮, 南原, 咸陽, 山淸, 河東郡 등 5個郡에 걸쳐서 그 둘레가 무려 800리나 되는 넓은 面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百餘里 길이의 主稜線 上에는 天王峰(해발 1,915m), 般若峰(1,733m), 老姑壇(1,507m) 등 三大主峰을 비롯하여 宰釋峰, 烟霞峰, 燭台峰, 七仙峰, 토끼峰 등 海拔 1,500m 以上되는 10餘個의 雄峰들이 높이 구름위에 솟아있고, 또 海拔

1,000m 이상의 巨峰들이 20餘峰, 그리고 무려 85個의 아름다운 大小峰巒들이 서로 연이어 높고 낮은 數 많은 山稜을 이루고, 더욱 主稜線에서 東·西·南·北 四方으로 마치 용트림하듯 힘차게 뻗어나간 15個의 큰 支稜線과 이에따른 15個의 깊고 큰 溪谷들이 서로 어울려서 800里 智異山 큰 둘레안에 千峰萬壑의 南韓最大의 莊山을 일구어 놓았다.

깊고 큰 15個 洞天의 溪谷마다에는 언제나 物量이 豊富한 淸淨溪流가 힘차게 흐르면서 빚어놓은 數 많은 潭沼·深淵과 急流·飛瀑들이 周圍의 奇岩, 樹林과 어울리어 數 많은 祕境과 絶景을 이루어 놓았으니 골골마다 溪流가 품어내는 玲瓏한 물보라와 淸麗한 물소리는 別惟天地 非人間的 幽寂한 淸涼感을 더하여 준다. 더욱 智異山이 靈山답게 神奇로운 것은 老姑壇에서 天王峰까지 海拔 1,500m안팎의 높은 高度를 維持하며 東·西로 百餘리나 길게 뻗어나간 主稜線 위에 位置하여 시리도록 차가운 淸涼生水가 年中湧出하는 샘(泉)터가 適當한 距離를 두고 10餘군데가 自然的으로 配置되어 있다는 놀라운 奇蹟的 事實이다. 이 天惠의 高山稜線 샘터들은 國內 다른 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神奇한 自然攝理로서 그 奇蹟의 샘名을 列擧하여 본다.

仙桃샘(老姑壇), 임걸샘(林傑嶺), 총각샘(토끼봉), 연하천(烟霞泉), 뱀실샘(碧宵嶺), 선비샘(德坪峰), 세석샘(細石高原), 陰陽水(細石南端), 山姬샘(장터목), 天王샘(天王峰南下) 등 以上의 智異山 10大 샘은 모두 所重한 食水源으로써 샘터는 現在 못

登山客의 野營場으로 活用되고 있다.

南韓 5大江 中の 하나인 蟾津江은 智異山 西·南 자락을 감싸 흐르고 또 南江上流인 瀕川江과 鏡湖江은 智異山의 北·東쪽을 굽이돌아 흐르니, 이처럼 큰 산과 큰 강이 어울려 山水의 調和를 이루고 到處에 數많은 勝景과 祕境을 빚어 놓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智異山 10景은 그 代表的 景觀으로 손꼽는다.

智異山 10景은 元來 筆者가 屬해 있는 智異山岳會 여러會員들이 1955년부터 1970年代까지 15年동안이나 智異山 坊坊曲曲을 모두 여러차례에 걸쳐서 踏查探勝한 끝에 異色の이고 優秀한 代表的 景觀 10景을 選定하여 當時 “國立公園”誌의 前身인 “錦繡江山”誌 創刊號(1972年 3月 發刊. P. 102)에 처음으로 掲載發表했던 智異山의 代表的 景觀으로서 그 빼어난 勝景들이 이후 많은 人口에 膾炙하니 當時의 適宜한 選定에 對하여 至今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때에 各景觀에 對하여 個別的 說明이 있었으므로 이에 생략하거나와 10景의 名稱만을 參考로 다시 적어본다.

1. 老姑壇 雲海
2. 피아골(稜田) 丹楓
3. 般若峰 落照
4. 碧宵嶺 明月
5. 細石철쭉(躑躅)
6. 佛日瀑布
7. 烟霞峰仙境
8. 天王峰 日出
9. 七仙洞溪谷
10. 蟾津江 清流

前述한 바와 같이 智異山은 그 山勢가 매우 아름답고 우람하여 秀麗莊嚴한 빼어난 山岳美를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廣闊한 山岳全體가 大部分 울창한 原始林으로 덮혀 一望無際 樹海를 이루고 있어 그 林相美 또한 優雅秀麗하기 이룰데 없으며, 더욱 우거진 密林속에는 寒·冷·溫帶를 이루는 高山 等高線을 따라 800餘 種類의 珍貴한 各種 植物들이 自生 分布되어 있으며, 400餘 種類의 各種 稀貴動物의 寶

庫를 이루고 있다.

1967년에 우리나라 自然國立公園 第1號의 名譽를 차지하며 指定된 智異山 國立公園은 自古로 그 名稱도 多樣하여 海東三神山의 하나로 方丈山, 五岳中の 하나로 南岳, 또는 頭流山, 不伏山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 왔으며, 옛부터 民族的 崇山信仰의 靈山으로서 國民의 崇仰의 對象이 되어 내려와 至今도 求禮에서는 穀雨節에 老姑壇下 南岳祠에서 智異山 神靈에게 歲和年豐과 國泰民安을 祈願하는 民俗祭典인 智異山藥水祭가 每年 盛大히 舉行되고 있다.

예로부터 智異山은 우리民族文化의 發祥地로서 또는 佛敎文化의 搖籃地로서 山麓 곳곳마다 明堂地에는 歷史깊은 多數의 古刹 寺庵과 由緒깊은 國寶, 寶物등 多數의 貴重한 文化財를 간직하고 있으니 悠久한 우리 歷史속에서 民族的 哀歡과 說話가 숨쉬고 있는 우리 民族史의 生生하고 貴重한 現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自古로 이땅의 賢人 達士와 數많은 詩人 墨客들이 智異山을 찾아들어 그 足跡을 남기고, 山의 거룩한 偉容과 빼어난 景觀에 感動되어 數많은 禮讚詩書 등을 남겨 놓았으니 이제 그 先人들이 보고 느낀 詩想의 情緒와 韻致를 通하여 智異山의 참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고, 傳해 내려오는 有名詩 몇首를 紹介함으로써 智異山 禮讚辭에 가름하고 저 한다.

1. 梁誠之 智異山詩

智異蒼蒼倚半空
千岩萬壑灑飛淙
洞中青鶴應欺我
胡不來聞岳寺鍾

지리산 우뚝솟아 하늘높이 뻗었는데

천골짜ق 폭포소리 물안개가 자욱인다

선경에 돌아드니 어화 저청학이 나를 희롱하누나

어찌 산사의 종소린들 이곳까지야 들려오리

2. 李景奭(白軒) 智異山詩

方丈高山接太虛 방장산(지리산) 높고 높아 하늘위에 솟았는데
 壯如衡嶽峻匡廬 장엄하기는 형산과 같고, 험준하기는 여산과 같구나
 千峰仰止登難遍 천봉을 우러러 볼 뿐 두루 올라가 보기 어렵고
 萬象着來盡不如 일만경치 보고와도 다함이 없더라

※ 衡嶽=衡山…中國, 호남성에 있는 五岳中の 하나
 匡廬=廬山…中國, 江西省에 있는 高岳名山

3. 徐敬德(花潭) 智異山 詩

智異巍巍鎮海東 지리산 우뚝 솟아 나라땅을 다스리고 있어
 登臨心眼浩無窮 올라가 보니 마음눈이 끝없이 펼쳐지네
 巖岩只玩峰巒秀 험한 바위는 다투듯 솟아 봉우리들이 빼어났는데
 磅礴誰知造化功 이렇게 빚어놓은 조물주의 공을 그 누가 알라
 舊地玄精奧雨露 옛땅에 담긴 현묘한 정기는 비와 이슬을 일으키고
 含天粹氣產英雄 하늘이 머금은 정수한 기운은 영웅을 낳게 하네
 嶽祇爲我清烟霧 산이 나를 위하여 걸친 구름과 안개를 걷어주니
 千里來尋誠所通 천리길 찾아온 나의 정성이 통한 것일세

4. 曹植(南溟) 智異山 詩

萬古天王峰, 悠久한 歲月속에 威然히 鎮座한 萬古의 거룩한 天王峰이기에
 天鳴猶不鳴, 비록 天氣는 變하여 울지언정 지리산은 오직 늠름한 不動姿勢로 그 威嚴이 決코 變함
 이 없어라

時調

頭流山 兩端水를 예듣고 이제보니
 桃花든 맑은 물에 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武陵이 어디메뇨
 나는 연가 하노라

5. 李仁老 智異山詩

頭流山廻暮雲低 지리산 둘레에 저녁노을 잠겼는데
 萬壑千岩似會稽 일만골짜기와 일천마위는 회계산을 닮았도다
 策杖欲尋青鶴洞 지팡이 잡고 청학동(선경)을 찾으려 하니

隔林空聽白猿啼 저 건너 숲속에선 원숭이 우름소리만 들려온다
 樓臺縹紗三山遠 누대는 보일듯 말듯 삼산밖에 아득하고
 苔蘇微茫四字題 이끼긴 네글자만 희미하구나
 試聞仙源何處是 문노니 청학동(선경)이 어디메뇨
 落花流水使人迷 꽃잎만 낙화유수 어지럽게 흘러 더욱 알 수 없구나
 ※ 會稽山과 三山은 모두 中國의 名山 이룸.

6. 金敦中 智異山詩

路攀直上最高峰 오르고 또 올라 곧바로 최상봉에 이르러
 回首塵塵一片紅 티끌세상을 돌아다 보니 한조각 흥진만 같구나
 徙倚烟霞得幽趣 산수 연하속에 배회하여 그윽한 정취에 젖고보니
 風流不愧晉羊公 풍류는 진나라 양공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네

7. 崔致遠(孤雲) 智異山에서의 靑山盟約詩

(1)

僧好莫道靑山好 스님이여 산좋다 말씀마오
 山好如何使出山 이렇게 좋은 산을 낸들 어이 떠나리오
 試看他日吾踪跡 뒷날에 내자취 두고 보시구려
 一入靑山更不還 한번 산에 들면 또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니

(2)

狂噴壘石吼重巒 성난 물줄기 바위에 부딪혀 깊은 골 이루니
 人語難分只尺間 지척의 말소리도 분별키 어려워라
 常恐是非聲到耳 두려운 세상소식 내귀에 다달을까봐
 故教流水盡籠山 일부러 물흘러 산을 감싼 것일까.

8. 李鉉相(남부군, 빨치산 사령관

이 남겼다고 전하는 智異山詩)

智異風雲堂湏洞 지리산 풍운이 당항동에 감도는데
 伏劍千里南州越 가슴깊이 검을 품고 천리길 남녘으로 넘어오다
 一念向時非祖國 언제나 내마음속에 조국이 떠난적이 있었을까
 胸中萬甲心有血 가슴속엔 단단한 각오가 있고 마음속엔 끓는 피가 있다.

9. 休靜(西山大師)의 詩

(智異山 三神洞에서의 入山詩)

忽聞杜宇啼牕外 창밖에 슬피우는 두견새 소리
滿眼春山盡故鄉 눈에 가득 봄산이 모두 고향같도다
吸水歸來忽回首 물길어 돌아오다 문득 바라보니
靑山無數白雲中 흰구름 사이에 청산이 모두 떠 있어라.

10. 禹鍾秀 智異山 詩

(1)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大地의 精氣가
큰 덩이 되어

구름도 쉬어 넘는
靈峰의 언저리엔
雄偉한 氣象이
넘쳐 흐르고

몇 億劫의
太初로부터
무거운 沈默만이
이기긴 岩壁위에
年輪을 되새기며

그대 홀로
孤高를 지키는
억센 메뿌리가
天空을 떠받치는
天柱마냥
智異山은 莊嚴하다.

(2) 푸르름은 언제나

삶의 보금자리
마음의 故鄉

울창한 密林
樹林의 바다엔
原始의 靜寂이
고이 깃들고

靈泉이 솟아 흐르는
맑은 물줄기는
밀림속에 꿈을 누벼
골짜기마다 철따라
온갖 꽃이 피어선 저도

언제나
變할줄 모르는
푸른 메뿌리가
太古를 지키는
神話마냥
智異山은 秀麗하다.

▲ 필자 소개

전남 구례 출생
동경 대동아학원 전문부 사학과 수료
구례중고등학교 교사 역임
지리산의 파수꾼으로 자임하며 현재 지리산악 회장
국립공원협회 지리산 남부지부장으로 활약중
※ 저서: “금강산 가이드”(수문출판사)